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 해빙기 현장 안전점검 시설물 준비 박차

✎ 길상훈 기자 | ⓒ 승인 2025.03.09 10:47

건설현장 및 농업생산기반시설물 위험요소 사전 차단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는 해빙기를 맞아 지난 7일부터 공주시 관내 건설현장과 농업생산기반시설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사진제공=농촌공사 공주시사)

[충남일보 길상훈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는 해빙기를 맞아 지난 7일부터 공주시 관내 건설현장과 농업생산기반시설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시행은 겨울철 해빙기 그동안 얼어있던 지반들이 대부분 녹으면서 사면 및 가시설물들이 붕괴로 각 건설 현장마다 건설장비가 넘어져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농어촌공, 공주시사 해빙기 현장 안전점검

박종구 기자

최종 기사입력 2025-03-08 16:44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지사장 박재근)는 3월 7일 공주시 관내 건설현장 및 농업생산기반시설물 대해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 했다.<사진>

이날 점검에서는 해빙기 발생에 취약한 시설물 및 가설구조물, 건설장비 등에 대해 현장실태를 점검했으며, 이달 21일 까지 점검을 완료하고 발견된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박재근 지사장은 "해빙기는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이므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미연에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농어촌公 공주시사, 현장 안전점검으로 철저한 준비 나서

윤 최형순 기자 | 승인 2025.03.07 17:14

해빙기 안전점검 본격화, 위험요소 사전 차단으로 안전 강화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지사장 박재근)는 7일 공주시 관내 건설현장 및 농업생산기반시설물 대해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에서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모습

해빙기에는 겨울철 얼어있던 지반이 녹으면서 사면 및 가시설이 무너지거나 건설장비가 넘어져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공주시사는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에 취약한 시설물 및 가설구조물, 건설장비 등에 대해 현장 실태 점검을 시작하였으며, 오는 21일 까지 점검을 완료하고 발견된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재근 지사장은“해빙기는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이므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미연에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